

생태전환교육 강화로 '환경시민' 키운다

전북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등 4대 중점과제 선정... 지속가능 환경교육 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환경 교육을 체계화하고,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 육성'을 2026년 학교 환경교육 목표로 삼아 교육과정 기반의 환경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교원 역량 강화 △탄소중립 실천 학생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실천 프로그램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 특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지원단 조직·운영, 생태전환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운영, 교원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전환교육 일반화를 위해

초등 2개교를 생태전환교육 모델 개발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 실정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 자료를 개발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원의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

해 전북교육연구원 및 한국교원대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 연수를 마련해 학교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을 높인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정 속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학교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 육성'을 2026년 학교 환경교육 목표로 삼아 교육과정 기반의 환경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립전주박물관 앞에서 열린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법무부 추진 시범사업에 전주비전대·군장대 선정 비전대, 미래모빌리티·군장대, 스마트농식품 인재 양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추진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에 전주비전대학교와 군산군장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주비전대는 미래모빌리티학과에서 80명, 군장대는 스마트농식품과에서 4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저학력·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인력 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던 방식을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유입→지역 정착·사회통합'이라는 전북

외국인 정책 목표를 본격 실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특화형 비자(F-2R, E-7-4R)를,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주요 도시에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활용하는 2트랙 전략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졸업 이후 정착 지원도 이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급을 이수하고, 전공 관련 기업과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비자로 5년 이상 지속 근무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도 가능해진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의 도내 2개 대학 선정으로 전북이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도내 미래모빌리티 및 스마트농식품 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만호 기자

20일부터 도내 초·중 새내기 학부모 교육

전북교육청, 군산 시작으로 5개 지역서 교육 학령별 맞춤형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자녀가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초·중학교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초·중학교 입학 앞둔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학부모교육은 예산 회계연도 운영 일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으나 입학 앞둔 실제 준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학년 진학

시기에 맞춘 2월로 교육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안내 △자녀 이해 및 발달단계별 특징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구분해 학령 단계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은 오는 20일 군산을 시

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3일까지 사전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063-223-1396)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자녀가 입학 앞둔 시기에는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의 불안은 줄이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기하학적 지형 인식 기반

주행 반단 기술 공동 검증

국립군산대, 독일 뮌헨

공과대와 국제 공동연구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 대학원은 지난 1월 2025학년도 동계 K-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계공학과 ANSIL 팀(지도교수 김신영, 김화석, 엄지현)이, 독일 뮌헨공과대학교(TUM) 모바일 로보틱스 랩과 함께 비정형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경지나 험지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율 이동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부 인프라나 미리 만들어진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이 스스로 주변 지형을 인식해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으며, 연구팀은 기존처럼 장애물의 유무만 판단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형의 형태 변화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함께 검토했다.

또한 ANSIL팀은 깊이 카메라를 활용해 지면의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준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적용해 센서 설치 위치나 각도에 따른 오차를 줄인 후 지면의 굴곡이나 형태 변화와 같은 특징을 분석해,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 TUM 모바일 로보틱스 랩은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감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위치 인식 기술과 정밀 지도 생성, 환경 인식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형 정보를 활용한 주행 판단 기술이 향후 경로 설정과 주행 제어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불어 ANSIL팀은 TUM의 연구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제 로봇 장비와 실험 환경을 살펴봤다. /군산=김만호 기자

현장중심 실천... 올 고창교육 청사진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독서·인문교육 강화 등 10개 과제 중심 추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5일 오후 2시, 고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6 고창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유·초·중등교(원)장과 교감, 교직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등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 80여명이 참석해 2026년 고창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한숙경 교육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5년 고창교육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6 고창교육 10대 핵심 실천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2026 고창교육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가정·가족 탐구 수업과 수업혁신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 지원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특성화고 취업 및 진로·진학 지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민주·생태·역사교육 활성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다문화교육 강화 △유아·노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등 10대 핵심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고창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 고창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성장과 지원을 중심으로 두고,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지향한다"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발표

3월 1일자... 교(원)장 승진 30명 등 총 2342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지난 6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교(원)장 승진 30명, 교(원)감 승진 34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213명 등 총 2342명에 대해 이뤄졌다.

신임 교육장으로는 남원교육장에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 진안교육장에 오선화 미래교육과장, 부안교육장에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을 각각 임용했다.

본청 과장으로는 미래교육과장에 장기영 상관초등학교장, 문예체건강과장에 임영근 군산상일고등학교장, 창의인재교육과장에 오지숙 전주만성중학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지속기관장으로는 교육연구원에 이영숙 전주여자고등학교장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초등은 적정규모의 학교에 유능하고 역량있는 관리자를 임용하고, 중등은 지역사회 기관을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공모교장 3명을 임용하는 등 전문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견고히 하고, 10대 핵심과제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원)장 및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지역 기반 평생학습 성과 공유·확산

전주대, '2025 전북 RISE 평생교육 동반성장 성과공유회'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전북 RISE 사업 Track III 참여대학들과 함께 추진한 '2025 전북 RISE 평생교육 동반성장 성과공유회'를 지난 5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평생교육 가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 Track III-1 및 Track III-2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RISE센터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등 전북 지역 RISE 참여대학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지역 기반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학별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성과 홍보 부스 운영 △네트워크 교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대상 평생교육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학위·비학위 연계 교육, 지역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현장 적용 중심 교육 성과 등을 발표했다.

특히 성과 홍보 부스에서는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과 학습자 성공 사례가 소개되며, 참석자들이 각 대학의 평생



교육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북 권역 내 RISE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북RISE센터 채수찬 센터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각 대학이 추진해 온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모델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RISE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 간 협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캠퍼스 활성화와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도내에서는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RISE 사업을 운영 중인 대학들이 참여하는 대학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대학 간 정보 공유와 공동 과제 발굴, 협력 모델 논의를 통해 지역 기반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동반성장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